

오늘부터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4%이하

금융위,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 위해 24%로 인하·시행 수수료·연체이자 등 대출 관련 받는 것 '이자'로 간주돼

8일 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가 약 4% 가량 인하돼 서민들이 금리부담을 다소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일부터 대부업체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

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p 낮아진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8일 부터는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갹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최고 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화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

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화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신용상태 개선 차주 및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며 "타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가 운영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7일 360도 5D 영상관을 개장하고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쿠아플라넷 여수, 360도 5D 영상관 개장

개장 기념 다양한 이벤트도

"스크린 속 영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짜릿한 체험을 즐겨보세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가 운영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7일 360도 5D 영상관을 개장했다. 새로 도입한 5D 영상관은 기존의 3면이 아닌 360도 스크린을 통해 전 방향 입체영상을 제공해 물입감이 뛰어나고 영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체험이 가능하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매시 정각에 포세이돈, 헨젤과 그레텔,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총 3개의 영상을 15분 간격으로 차례로 상영할 예정이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5D 영상관 개장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BIG3 패키지권 현장 구매 시 기프트샵과 푸드코트 10% 할

인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설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제외된다. 같은 기간 5D 영상관 입장권이 포함된 BIG2-B, BIG3 패키지권(성인 2명 이상) 구매 시 어린이 1명은 영상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영상관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과 5D 영상관 후기를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인증하면 14일까지 아쿠아 캐릭터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한화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에서는 12일까지 영상관 리뷰어 소식을 알리는 포스팅에 친구를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아쿠아플라넷 여수 무료관람권 2매, 바나나우유 기프트콘 등을 증정하는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첨지는 14일 발표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주은행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

내달 31일까지 총 103명 추첨

광주은행은 3월31일까지 대학등록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3명에게 장학금과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이벤트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 2등 2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을 지급하며, 행운상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 2만원권을 제공한다. 추첨 결과는 4월 중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홍 기자

지역구관 미래장조 정문희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황혼알바' 증가세...50대 이상 고령 알바생 5년새 7배 늘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

50대↑ 알바생 이력서 총 5403건 45% "1년 이상 장기알바 선호"

은발의 황혼알바생이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5년새 50세 이상 고령알바생이 7배 늘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대표 운영중)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한달간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이력서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새롭게 등록된 50대 이상 알바이력서는 총 5403건. 2014년 1월 768건과 비교하면 5년새 7배가 증가했다. 알바몬은 2018년 1월 기준 전체 신규 이력서 중 50대 이상 황혼알바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지만, 증가세만큼은 다른 연령보다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이력서는 4.7배가 증가했다. 알바몬 벤지성 팀장은 "아르바이트가 부수입 마련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생계 유지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혼알바생 이력서에서는 꾸준히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찾는 경향이 발

견된다. 실제로 알바몬이 연령별 이력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근무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력서 중 1년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력서 비중은 13.2%. 반면 5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이의 3배에 달하는 45.0%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을 무관으로 설정하는 비중도 35.3%로 전체 평균 30.0%보다 높았다. 6개월~1년을 희망하는 경우가 8.4%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장기 알바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게 특징이다. 반면 10대 알바생의 1년 이상 장기근무 희망 비중은 2.8%, 20대 알바생의 희망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한편 각 아르바이트 직종별로 연령 분포를 살펴볼 때 50대 이상 고령 알바생의 구직 분포가 가장 높은 직종은 공인중개사(12.5%)가 차지했다. 성별로 50대 이상 남성의 구직 분포가 가장 높았던 아르바이트는 운전·대리운전(8.4%)이었다. 이어 화물·중장비·특수차(8.0%), 주차관리·주차도우미(5.5%), 배달(5.4%)이 차례로 5위 안에 올랐다. 반면 50대 이상 여성은 가구·침구·생활소품이 7.8%로 분포율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7.6%),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7.3%), 고객상담·인바운드(6.2%),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5.5%) 등 순이다. 뉴스



홈플러스에서 사랑을 전하세요 7일 서울시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밸런타인데이 프로모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홈플러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상품들을 마련하고 구매 고객들에게는 사은품 제공을 하고 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